

#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의 내실 다졌다

드론으로 촬영한 담양읍 전경



담양군의 2019년은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의 내실을 다진 해로 평가할 수 있다. 담양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첨단문화복합단지, 일반 산업단지 외 고서 보춘지구, 메타프로방스 등 대규모 사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6년의 법정 다듬 끝에 완전히 정상화가 된 메타프로방스는 앞으로 축복원과 함께 담양을 넘어 전국적인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도록 원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담양군은 민선 3기부터 꾸준히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표방하며 풍부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품격높은 관광담양’, ‘소득을 만드는 관광담양’으로 연간 70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외형적인 규모의 성장과 함께 관광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원도심에 문화라는 숨결로 새 생명을 불어넣는 중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6월 임시 개최한 해동문화예술촌은 도심 속에 위치한 폐 주조장을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2019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구 담양읍교회 창작문화공간과 작은도서관, 해동쉼터 등 해동문화예술촌의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면, 담양 도시 재생 사업의 선두적 역할로 침체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명실상부한 문화생태도시로의 성공을 향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 중인데, 담양읍 담주리 일원에 담양이 보유한 역사적, 문

화적, 인문학적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복합 문화예술 거점, ‘담주 예술구’를 조성하고 있다. 원도심과 전통시장을 아우르는 이곳은 앞으로 생태경관과 함께 하는 데라스형 매장과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청년상인들의 상업공간으로 조성해 생태관광지의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소비를 이끌어 내 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가교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 국비 확보도 눈부시다. 최근 담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0년 담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150억 원), 한국전력공사 주관하는 △한전지중화사업(40억 원) 등 공모사업 총 190억 원(국비 105억 원, 한전 등 부담 20억 원)이 담양읍 원도심 일원에 최종 선정되어 내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담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주민과 인근마을 주민이 함께 누리는 다목적센터신축과 지역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한전지중화사업은 중앙로인 담양터미널~만성교 구간에 대해서 공중배전설비와 통신설비 등을 지중화하는 사업이다.

또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포함 총 사업비 154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으로 구도심지역 14만 4400㎡의 면적을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에 걸쳐 창업·주거·문화 등이 복합된 혁신거점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노후 주거지 집수리사업, 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문화예술 거점조성, 생태문화광장 조성, 어울림센터 조성, 해동문화예술촌과 연계한 사업 등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군은 주민들과 각종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1년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위원회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앞으로 이 두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담양읍 담양읍 공모사업 2건 최종 선정 쾌거

농림수산물부가 주관하는 2020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각종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10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담양군은 담양읍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0년 담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150억 원),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는 △한전지중화사업(40억 원) 등 공모사업 총 190억 원(국비 105억 원, 한전 등 부담 20억 원)이 담양읍 원도심 일원에 최종 선정되어 내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주민과 인근마을 주민이 함

께 누리는 다목적센터신축과 지역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한전지중화사업은 중앙로인 담양터미널~만성교 구간에 대해서 공중배전설비와 통신설비 등을 지중화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경우 지역구 이계호 국회의원 사업계획 수립부터 선정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군은 공모 신청한 154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두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공모

사업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포함 총 사업비 154억 원을 확보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담양읍 담주리 일대 구도심지역에 ‘문화생태로’ 새로운 천년을 디자인하 다의 슬로건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했으며, 그동안 다수의 컨설팅과 평가위원들의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국토교통부 검증에 통과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구도심지역 14만 4400㎡의 면적을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에 걸쳐 창업·주거·문화 등이 복합된 혁신거점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번에 추진할 사업은 노후주거지 집수리사업, 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문화예술 거점조성, 생태문화광장 조성, 어울림센터 조성, 해동문화예술촌과 연계한 사업 등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군은 주민들과 각종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1년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위원회와 주민협의

체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담주 예술구 조성사업

담주 예술구 조성사업은 과거 담양에서 가장 번화했던, 영종동이라고 불리웠던 담양읍 담주리 일대를 문화와 예술, 상업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복합문화예술 거점으로 조성하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다.

여기서 ‘담주’는 담양의 옛지명이며 현재 담주리 마을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8년 담양지명 1,000년의 해를 맞아 담양의 과거 1,000년의 역사적 가치를 통해 미래 1,000년을 준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담양은 생태관광도시라는 브랜드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생태관광지에만 집중되어 있어 원도심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담양읍 담주리 일원에 담양이 보유한 역사적, 문화적, 인문학적 요소를 결합해 새로운 복합 문화예술 거점을 조성하게 되었다.

본 사업지인 담주 예술구는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과 전라남도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 중기부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결합된 형태다.

담주 예술구가 생태관광지의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소비를 이끌어 내 원도심 재생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 도시재생사업으로 유서깊은 역사·문화 전통도시 재현 생태관광지 관광객들 유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첨단문화복합단지·메타프로방스 등 대표관광지 우뚝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메타프로방스 전경



복합문화공간 해동 주조장